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조선속도' 또 독려...'강성국가건설은 시대 사명'(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 게재한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요대상 건설장들과 과학연구기관들, 동해와 서해의 수산기지들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날에 날마다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조선속도 창조는 혁명의 절박한 요구라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 이것은 오늘날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며 의무"라고 강조함.

- **北 "동해안 최전방서 포 실탄사격 훈련"...김정은 지도(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 최전방의 영웅고지 351고지'에서 제171군부대의 포 실탄사격 훈련을 지도했다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 훈련이 동부전선을 지키고있는 포병 부대들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입하는 적들을 강력한 포병화력 타격으로 진압할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검열하고 경상적(정상적)인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함.

- **北 '전승절' 띄우기...김일성 찬양에 사적지 답사(7/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기적을 창조하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라는 글을 통해 온 겨레가 전승절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회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 글은 김일성 주석이 625전쟁 때 독창적인 전법으로 미국을 꺾었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고(승리하고) 전승의 축포를 터쳐 올릴 수 있었다"고 찬양함.

- **北 김정은, 강원도 통천 수산물연구소 시찰(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 연구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설립됐으며 "연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급 어족에 대한 연구사업과 양어는 물론 물고기 가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라고 소개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인공수정실', '알 발육실', '양어뿔', '사료 가공장', '물고기 가공공장' 등 연구소 시설을 둘러본 뒤 "천아포수산업 구소를 현대적인 과학연구 및 보급 기지,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는 양어 및 물고기 가공의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기지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밝힘.
- 北, '원수 칭호' 2주년 맞아 김정은 리더십 부각(7/17,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7일 6개 지면 대부분을 원수 칭호 2주년을 축하하고 김 제1위원장을 찬양한 내용으로 채웠으며, 2면의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선군조선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는 원수 칭호 수여에 대해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조선중앙방송도 17일 원수 칭호 2주년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의 기봉철 국장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해 드린 것은 그이에 대한 천민군민의 다함 없는 흠모와 그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고 우리 민족의 대경사"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軍산하 그물플라스틱관 생산시설 시찰(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제1521호 기업소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플라스틱)관 직장(생산라인)을 시찰했으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과수업과 수산업, 건설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들에 절실히 필요한 그물과 밧줄, 수지관들을 생산하고 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 직장은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며 "기업소가 부강조국 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종합공장으로 체모를 갖췄다"고 강조함.
- 北 "북러 친선 강화해야...김정은 깊은 관심"(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공동선언 이후) 조러(북러) 친선관계에서는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러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관심 속에 조러 관계는 친선협조, 선린우호의 원칙에서 끊임없이 강화돼왔다"며 "오늘 전통적인 조러 친선의 역사는 김정은 원수님의 깊은 관심 속에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인천 AG 참가해 화해단합에 이바지해야"(7/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



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종합팀 남자축구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그동안 훈련을 잘했다"고 치하하고 "체육인들이 경기대회에 참가해 송고한 체육정신과 민족의 기개,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겨레의 화해와 단합, 세계 여러 나라와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라며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의 정치적 농락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동향

- 7/15, 김정은 黨 제1비서, 최전연 인민군 제171군부대직속 민경초소와 군부대관하 2대대 3중대 초소 시찰 및 제171군부대 포신탄 사격 훈련 지도(7.15, 중앙통신·중앙방송)
- 7/17, 김정은 黨 제1비서, 천아포수산연구소 현지지도(7.17, 중앙통신·중앙방송)
- 7/1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1521호 기업의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 현지지도(7.18, 중앙통신·중앙방송)
- 7/18,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지도(7.18, 중앙통신·중앙방송)
- 7/18,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7.18, 중앙방송)
- 7/20, 김정은 黨 제1비서, 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 지도(7.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발표 28돌 관련 '주체사상 교양 강화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며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저지 투쟁 선동(7.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위력한 보검, 민족의 융성번영을 담보해주는 기치'라고 호도(7.17, 중앙통신·노동신문)
- 인민군 군인들, 7월 18일 '조국해방전쟁승리'(7.27) 61주년을 즈음하여 '항하혁명사적지' 참관(7.19, 중앙통신)



나. 경제

- **조선신보 "상반기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 20% 증가"(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조선(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조선국제여행사 합진 사장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간에만도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올해에 들어와 첫 선을 보인 마식령 스키애호가 관광과 등산애호가 관광, 군사애호가 관광은 시작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비결로 꼽음.

- **"北, 英 민간단체에도 아파트붕괴 구호 요청"(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 '셸터 박스'는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 아파트 붕괴사건의 구호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15일 RFA에 밝힘.
 - 그러나 이 단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RFA가 덧붙임.

- **"상반기 블라디보스토크~평양 항공노선 승객 22% 증가"(7/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의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보도함.
 - 북한과 러시아는 평양~하바롭스크 정기 항공편의 운항 재개도 추진 중이어서 양국 간 여객기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RFA가 전망함.

- **美농무부 "北주민 영양수준, 아시아서 두 번째로 나빠"(7/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지난 14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4'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은 영양 섭취가 유엔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밝힘.
 - 즉, 북한은 인구의 3분의 2인 1천700만명이 영양분 섭취가 부족하며, 이는 전 국민의 90%가 유엔 권장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 **체코 회사, 북한 나선시 맥주공장 건설 지원(7/17, 미국의소리(VOA))**
 - 체코 일간지 '몰라다 프론타 드네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나선 맥주공장은 전 세계에 맥주공장 250여 개를 건설한 체코의 양조장 전문 회사 '즈부 포테즈'의 지원으로 건설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인용 보도함.
 - 특히 이 회사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체코의 소규모 양조장을 견학시키며 생산하고 싶은 맥주의 종류를 정하도록 했고, 자회사의 기술자를 6개월 간 북한에 보내 제조기술을 전수토록 했다고 VOA가 전함.



- **美 여행사, 北 국제레슬링대회 관람 상품 출시(7/17, 연합뉴스)**
 - 17일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다음달 30~31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관람 일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관광객을 모집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투어는 북한 당국이 대회 경기장에 관광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입장권 가격은 가장 비싼 A석이 200 달러(약 21만 원), 가장 저렴한 D석이 50달러라고 소개했으며, 이번에 나온 관광상품에는 프로레슬링 경기 관람뿐 아니라 평양, 원산, 금강산,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도 포함됐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농업기술 홍보 강화...신문방송 적극 활용(7/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수확고를 높이는 강냉이 이삭 목 찌르기'라는 글에서 평안북도 구장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옥수수의 이삭 목(이삭이 달린 부분)에 재생호르몬이 나오도록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수확량을 늘린 사례를 소개함.
 - 이 글은 노동신문이 올해 3월13일부터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7번째 기사이며, 신문은 이 코너를 새로 만들며 "올해 농업을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진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농업생산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 **"유엔, 北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위한 자금지원 승인"(7/18, 미국의소리(VOA))**
 - 버지니아 도스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화학물질 관리 표준화 사업을 위해 20만 달러(약 2억원)의 자금 지원을 유엔에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밝힘.
 - 유엔훈련기구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사업 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VOA가 전함.

- **"말레이시아 18개 기업, 9월 평양국제박람회 참가"(7/18, 자유아시아방송(RFA); 남양상보)**
 - 말레이시아의 18개 기업이 9월 말 평양에서 열리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남양상보'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평양 박람회에 참가하려는 기업이 주로 화교 계열이며 커피과자초콜릿 등 식품류와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포함되었고, 말레이시아 기업은 박람회장에 20개 정도의 전시 부스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北-러 합작' 나진항 3호 부두 준공(7/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건설한 함경북도 나진항 3호 부두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전길수 철도상은 연설에서 "조러(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정



신에 의하여 새로 마련된 운수통로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친선의 다리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함.

- "올해 상반기 北 주민 중국 방문 7% 감소"(7/19,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7.3%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자료를 인용해 19일 보도함.
 - VOA에 의하면 올해 1~6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9만 1천8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9만 9천100명에 비해 7.3% 줄어든 규모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 5만 2천100명에서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기타 (대내 경제)

- 황해북도산원(부지면적 1만㎡, 외래치료병동 등 조성 및 해산실 등 10여개 전문과), 새로 건설(7.14, 중앙통신)
- 김철호(농업성 국장), '수천정보의 과수밭 추가 조성 나무 생존율 90% 이상' 등 '과수업부문 상반기 성과 달성' 선전(7.14, 중앙통신)
- 나선국제여행사와 중국 길림성 연변봄국제여행사 합의로 12일~14일까지 나선시 해수욕장에서 "천막관광" 진행(7.14, 중앙통신)
-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전자 위내시경을 비롯한 진단치료설비들과 의료소 공기구들 연이어 생산(7.15, 중앙방송)
- 산림부문에서 임농복합경영 방법을 도입하여 '산림조성과 농산물 생산에서 덕을 보고 있다'며 '먹이풀의 활착률(*옻겨 심거나 접목한 식물이 제대로 산 비율)은 100%이며 지난 시기에 비해 생산량은 2배 이상'이라고 보도(7.16,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경공업 부각... "김정은, 수영복 디자인도 챙겨"(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갓가지 수영복 생산이 늘어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물놀이 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한 다양한 수영복들을 소개하며 "원수님(김정은)께서 인민들에게 더 멋있고 훌륭한 수영복을 안겨주시려고 크나큰 온정을 베풀었다"며 "수영복 도안들을 몸소 봐주시며 하나하나 완성해줬다"고 주장함.
 - 신문은 "새롭게 특색있는 갓가지 수영복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생산되는 족족 상업망을 통해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물놀이장에 가닿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박봉주 총리, 홍수피해 예방사업 현지 점검(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박봉주 총리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라며 "총리는 평양시와 남포시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대동강의 준설작업 실태, 수문관리 정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협의회를 가졌다"고 전함.
 - 박 총리는 "해당 단위들에서 대동강의 물 흐름량과 수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문에 대한 자동조종체계를 철저히 세워 큰물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자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함.

- **"유엔, 北 홍역 심각한 수준 아니라고 판단"(7/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의 대부분 지방에서 현재까지 심한 기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북한 전역의 평균 강수량은 23.5mm로 평년(83mm)의 35%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함.
 - 이 같은 강수량 수치는 1982년(20.5mm)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로, 통신은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에 가뭄 피해를 받아 작물들의 작황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번 가뭄으로 북한 전역에서 수천 정보의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밝힘.

- **"北, 국제수학올림피아드 14위...작년보다 순위 하락"(7/1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1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열린 제55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북한이 종합점수 154점으로 14위에 올랐다고 전해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점수 172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고 전함.

- **北 주민, 전광판으로 월드컵 시청...평가도 각양각색(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월드컵 방영, 평양의 축구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월드컵대회 기간 축구 경기를 즐기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소개함.
 - 전통 축구강국인 브라질이 독일에 7대 1로 '대패'한 경기는 북한에서도 큰 이슈가 됐으며, 브라질에서 열린 대회에서 유럽 국가인 독일이 우승한 것을 두고도 "축구경기에서 절대 강자란 없다", "주최국이 반드시 우승하는 것은 아니다" 등 각양각색의 평가가 쏟아졌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北 "휘날리는 통일기 못잇어"...인천AG 공동응원 관심(7/1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에는 15일 과거의 남북 단일팀을 회상하며 단일팀 구성을 독려하는 듯한 '425 체육단' 소속 탁구선수 김혁봉 선수의 글이 실림.
 - 김혁봉은 이 글에서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리스본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등 남북이 단일팀을 이뤄 출전한 대회를 돌이켜보며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단일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과시하던 그때를 어떻게 잊겠는가"라고 밝힘.



● **초복 맞은 北도 '삼계탕' 예찬론(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좋은 삼계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단고기장(보신탕)에 못지않은 보양음식"이라며 삼계탕의 장점을 강조함.
- 통신은 "삼계탕은 조선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먹어온 민족음식"이라며 "무더운 여름철 일부 식당에 가면 이 보양음식을 맛보게 된다"고 전함.

● **北 기상청, 국제기구에 '대규모 홍수 예상' 통보(7/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올해 "대규모 홍수가 예상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프랜시스 마커스 IFRC 대변인은 17일 RFA에 "북한 기상청이 올해 대규모 홍수를 예보해와 재난 구호 준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평양시·평안남북도 대부분 지방의 1월~7월 13일 현재 강우량이 84~220mm로서 평년의 28~54%이며 서해·동해안 중부지방 등 대부분 지방에서 '고온과 왕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7.14,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장마철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선전(7.15,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나노기술연구소의 "나노금(金)주사약(나노금+천연 생물활성물질)" 개발 및 '약리작용 증대와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치료효과' 선전(7.17, 중앙통신)
- 해상체육월간(7월~8월)을 맞는 각지 수영장들과 해수욕장들, 청소년학생들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선전(7.18, 중앙통신)
-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7월 18일 비전향장기수 리공순과 상봉(7.18, 중앙통신)
- 김일성 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과 경성군에 건립(7.20, 중앙통신)
-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27)' 61주년 즈음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의 취주악 및 대열합창 경연, 7월 20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7.20,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 시대착오적 '전략적인내' 대북정책 포기해야"(7/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랄한 내용으로 수장보충돼 강행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난함.
 - 신문은 특히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함.
- **北 "美, '北위협설' 내세워 북일관계 개선 방해"(7/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에서 마틴 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최근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며 "이것은 판에 박은 북조선 위협설을 계속 퍼뜨려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현에 유익하게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통신은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일본이 북조선과의 대화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 나라에 모종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조일(북일) 관계 개선이 저들 주도의 침략 동맹을 강화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타산한 데 있다"고 지적함.
- **북한 강석주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훈련 대항수단"(7/14, 교도통신)**
 -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등이 14일 교도통신을 통해 전함.
 - 통신에 의하면 강석주 비서는 특히 미사일 발사가 일본을 겨냥한 시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북 의원단은 전함.
- **몽골 바트톨가 의원 대통령 특사로 방북(7/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몽골 대통령 특사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국가대회의 의원과 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연합뉴스 14일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방북한 바트톨가 특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몽골 공업·농업장관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룡남 무역상 등과 회담하고 '북-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문을 체결함.



- **美정부, 北무력시위에 "도발로는 안전보장 못받아"(7/1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연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사일 발사가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로켓과 야포를 쏜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한 국무부는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그같은 도발 행위는 지역에서 긴장을 높일 뿐 북한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日 인적교류, 관계개선에 큰 영향"(7/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메아리' 코너에 실린 '새로운 흐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결정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인사 왕래 제한조치의 완화는 예상 이상으로 조일(북일)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조선신보는 "일본인의 조선(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한 최대의 원인이 인사 왕래의 차단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의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일반 시민 등 여러 층이 대량적으로 조선을 방문하기만 해도 아무리 두터운 조일 사이의 벽도 물 먹은 담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함.
- **北,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美 대북정책 전환 촉구(7/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한)반도 정세긴장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16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오늘날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을 동반한 군사적 망동이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특히 논평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을 파멸시키기 위해 핵을 휘두르는 자들은 오직 핵으로써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찾은 최종결론"이라며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상태'를 몰아온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함.
- **北 대외경제상에 리룡남 확인...몽골 특사와 회담(7/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대외경제상과 몽골 대통령의 특사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국가대회(우리의 국회) 의원의 회담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리룡남을 '대외경제상'으로 소개함.
 - 앞서 북한은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상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北,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비난…"당장 중단해야"**(7/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주민 지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육한 이스라엘의 야수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연계 부적절"**(7/16, 연합뉴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 연합훈련과 연계시키는데 신중을 기해 주기 당부한다"고 밝힘.
 - 그는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명백하게 긴장 고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연례적으로 약 40년간 진행된 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함.

- **"北 청천강호 선원, 파나마에 임금 손실보상 소송계획"**(7/16,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판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들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임금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北 "북미대결은 정치사상적 대결…사상침투 봉쇄해야"**(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국주의자들과의 사상적 대결에서는 한걸음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년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은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통해 일부 나라들의 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웠다"고 비난함.
 - 이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주요 원인은 사상사업을 소홀히 한 데 있다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올 3월부터 전담반 꾸려 일본인 조사 시작"**(7/17,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뉴스에 의하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한 소식통은 17일 "북한은 올해 3월 12일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북송 일본인 귀화자와 일본인 유골 등을 조사하는 '312그루빠'를 꾸려 이미 실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함.



- **"北, 美 백악관에도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 서한"(7/17,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미국 코미디 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이어 미국 백악관에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의 이 서한에서 영화 '인터뷰'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설명함.

- **"영국 北대사관 주차위반 과태료 18개월간 1천800만원"(7/17, 미국의소리(VOA))**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작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내지 않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1만320 파운드(약 1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런던에 주재하는 다수의 외국 대사관과 국제기구들은 면책특권을 이유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VOA가 전함.

- **북한 당국자 "북중 공유하천 환경분야 협력 희망"(7/17, 중국환경보)**
 - 박호용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지난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환경보호부 리간제(李干杰) 부부장을 만났다고 중국환경보(中國環境報)가 17일 보도함.
 - 박 부상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그동안 환경보호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게 평가한 뒤 "양국이 환경보호 교류를 한층 확대하고 특히 공유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 환경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자발적 입국자 日귀국허용 의사 표명"(7/18, 산케이신문)**
 -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의사로 입국해 머무는 사람은 일본으로 귀국해도 좋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북한 남성, 카타르서 술 제조판매 혐의로 체포"(7/18,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남성이 카타르에서 밀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이 북한 남성은 제조한 밀주를 북한 근로자뿐 아니라 제3국 노동자들에게도 판매했으며 특히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음.

- **"北, 미얀마 언론인 방북 제안"(7/18, 이라와디)**
 - 미얀마 언론 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6일 미얀마 언론기관인 '임시언론위원회'를 방문해 위원회 소속 언론인의 방북을 제안함.
 - 김 대사는 북한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상



황에서 미안마 대중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면 언론인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7월 14일 재일본 조선인 대표단 (단장 : 권순휘 「총련」 고문) 면담(7.14, 중앙통신 중앙방송)
- 北-러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공동선언 채택으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높은 수준에서 발전하였다'며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7.19,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사일 발사 항의서한 北에 전달"(7/17, 미국의소리(VOA))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보낸 공동서한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北 "유엔 안보리 '단거리미사일 규탄, 공정성 상실'(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은 19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언론 성명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 늘어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성명은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현 정세는 강력한 핵억제력에 기초해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가중되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더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행동도 연례화, 정례화될 것"이라고 위협함.



갔다. 240mm 궤적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추적용 '그린파인' 레이더로 포착됨.

- **北,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간첩사건 제작소" 비난(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날날이 드러난 간첩사건 제작소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정보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온갖 반공화국 모략과 극악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사실이 날날이 폭로됐다"고 주장함.
 - 신문은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간첩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 자들은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구 구타하였으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함.
 - 또 "지금껏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간첩사건'이니, '탈북사건'이니, 조난당한 우리 주민들의 '귀순'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반공화국 날조선전에 열을 올렸다"고 덧붙임.
- **北 "지금 南이 용단을 내려야"...대북정책 전환 촉구(7/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시대착오적인 적대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온 겨레가 북남대결 상태의 해소를 바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남조선 당국이 더이상 역사와 후대들 앞에 치욕스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힘.
 - 신문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입장에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시하던 냉전 시대의 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방어 아닌 침략 목적"(7/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은 가릴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의 침략전쟁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전투기정보기 등을 거론하며 "이들은 작전반경이나 무장 장비 능력으로 보나 공격을 위한 것으로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주장함.
 - 또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미국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될 때마다 군사훈련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함.
- **한민구 "北, 또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7/20, KBS;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이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수십 차례 북한에 대해서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북한은 이러한 도발을 하면서도 정부 혹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또는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공세로 저는 평가를 하고, 북한이 이러한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 분열을 통한 대북정책의 전환 압박이라는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강행 통보(7/18,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은 이날부터 출입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제재 강화 조치 내용을 보면 북측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롯한 금지품목 반입, 출입증명서 미소지 등 출입질서를 위반한 우리측 인원에 대해서는 당일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南, 청와대 지령 받고 응원단 규모 트집"(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에서 17일 개최된 남북 실무접촉 소식을 전하며 "모처럼 진행된 북남 실무회담은 남측의 부당한 태도와 도발 행위로 하여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다음번 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북측이 실무접촉 오전 회의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규모, 이동 경로, 교통 수단, 경기 진행, 응원, 신변안전, 통신보장, 언론 취재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며 "오전 회담에서 우리측 안에 호응하던 남측이 오후에는 청와대의 지령을 받고 완전히 돌변해 도전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함.
- 이어 "남측은 지령을 받느라고 14시로 예정된 오후 회담을 2시간 15분이나 지연시켰으며 뒤늦게 회담 탁에 나와서는 오전에 저들이 한말을 모두 뒤집으면서 '국제관례'니, '대표단 규모가 너무 크다'느니 하고 트집을 걸었다"고 지적함.

● 北, '인천 AG 실무접촉 결렬' 南에 비난 공세(7/1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배후조종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 실무회담이 파탄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당국에게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지난 17일 남북 실무접촉 오후 회의에서 북측이 남측의 태도에 대



해 "그것이 청와대의 입장인가"라고 따지자 남측 관계자가 "북의 새로운 제안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상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렸다"고 답했다고 주장함.

- 또 남측이 실무접촉 오전 회의에서는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이 오면 환대해줄 것", "속속로 이용하게 될 '만경봉-92'호의 제주해협 통과와 인천항 정박도 잘 보장하는 방향에서 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청와대의 지령'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청와대가 이번 북남 실무회담을 파탄시키도록 한 것은 한마디로 제2의 615 통일시대와 같은 감격적인 화폭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北, 인천AG 실무접촉 '전모' 공개...南에 책임 전가(7/20, 조선중앙통신)**
-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대표단은 남측이 터무니없이 사실을 왜곡해 파렴치한 모략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힌다"며 실무접촉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공개함.
 - 담화는 "지금까지 북과 남 사이에 수많은 회담이 진행돼왔어도 이번처럼 남측이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다르고 청와대가 무지막지하게 내리 먹여 체육실무회담을 시작도 변변히 못 한 채 결렬로 몰아넣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비난함.
 - 이어 "국제관례와 대회 규정 그 어디에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있으며 더욱이 국기도 마음대로 들지 못하게 하고 규격을 정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아시안게임 참가는 남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덧붙임.
- **겨레말큰사전 남북 편찬회의 29일 선양서 재개(7/20, 연합뉴스)**
-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사업회) 편찬실장은 20일 "북측과 오는 29일 선양에서 제21차 편찬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6년 2월 남북 편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으며, 사업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5년여간 남북이 각각 진행한 편찬 작업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한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연방제방식의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은 연방제통일밖에 없다"고 주장(7.14, 중앙통신 노동신문)
- 지난 17일 광주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5명이 모두 죽고 추락장소에 화재가 났다"고 KBS 방송을 인용하여 보도(7.19, 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계속 높이 추켜들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며 온 겨레의 '6·15공동선언의 조국통일 실현 투쟁' 선동(7.20,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DMZ 인근서 잇단 무력시위...대남 위협수위 높여(7/14, 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여km 떨어진 개성 지역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하루 만에 동부전선 MDL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등 100여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성 행동을 벌였음.
 - 이날 사격은 그동안 북한군이 동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중 가장 남쪽에서 실시한 것으로 전날 역시 역대 미사일 발사 중 가장 남쪽 지역에서 실시한 것이었는데, 발사 지역을 MDL 바로 인근으로 남하한 것은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됨.
 -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부전선 MDL 인근에서 일시에 100여 발 쏜 것은 지난 3월 백령도 쪽 해상으로 100여 발을 쏜 것과 비슷하다"면서 "목표물이 정해지면 그곳으로 언제든지 대량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오바마-시진핑 통화...북한 핵 문제 논의(7/15, 연합뉴스)**
 - 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동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백악관 성명이 있었다고 보도했음.
 - 두 정상간 통화는 지난 9~10일 이었던 마중 전략경제대화 이후 이뤄진 것으로 당시 양국은 많은 부분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었지만 이날 통화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며 양국 간의 차이를 건설적으로 풀 자세가 돼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 시 주석은 "양국 간 다양한 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성과는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었으며 앞으로도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마중 협력이 양국관계의 주류가 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나. 미북 관계

- **워싱턴 일각 '對北 대화론' 솔솔...美정부는 '요지부동'(7/14, 연합뉴스)**
 - 오바마 행정부 1기 대북제재 정책을 상징해온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워싱턴 내에서 대북 대화론이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음.

- 대화론의 핵심은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 대북 제재가 북한을 고립화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제어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임.
- 그러나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백악관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돼있고, 특히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 북핵문제는 대화로도 제재로도 풀리기 어렵다는 '북핵 피로' 현상이 심화돼있다는 분석이 있음.

● 美, 북핵 라인 조만간 재구축...대북정책 변화 주목(7/15, 연합뉴스)

- 성김 주한 미국대사 및 미국이 1년간 공식으로 뒀던 6자회담 특사 등 미국의 주요 북핵 라인이 조만간 재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통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음.
- 이번 재편과정은 '대북정책 특별대표-6자회담 특사-한국과'로 이어지는 미국 국무부의 북핵 라인이 1년여 만에 다시 진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정부 안팎에는 이런 북핵 라인 재구축이 시기적으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바꾸기는 힘들지만 선거가 끝나면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따른 것임.

● 美국무부 "北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우려 표명(7/17, 연합뉴스)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남서쪽 지역에서 2발의 스커드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동쪽 바다를 향해 발사했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며 "도발 행위로는 지역에서 긴장을 높일 뿐 북한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북한의 최근 로켓 및 미사일 발사가 국제항공기 비행에 주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며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동서한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음.



다. 중북 관계

● 올해 상반기 北 주민 중국 방문 7% 감소(7/19, 연합뉴스)

-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7.3% 감소한 9만 1천800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자료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9만 9천100명에 비해 7.3% 줄어든 규모임.
-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2010년 5만 2천 100명에서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 이후 냉랭해진 중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또한 중국 방문 북한 주민 가운데 취업 목적의 방문자가 거의 절반에 달했고 사업 목적은 작년 상반기보다 30%, 관광객은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한편 올해 상반기 중국 방문 외국인인 한국인은 19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미국, 러시아가 뒤를 이었음.

라. 일북 관계

● 방북 日의원재일동포 대표단, 공장 방문 '눈길'(7/15, 연합뉴스)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국회의원과 재일동포들은 개성공단, 북한에서 옷감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경제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일본 정치인이 남북 합작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등 북한의 공장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임.
- 재일조선인과 일본 국회의원이 북한 내 공장을 둘러본 것은 최근 일북 관계 개선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며, 지난 4일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한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 재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북한의 원산, 남포 등의 제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노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北, 올 3월부터 전담반 꾸려 일본인 조사 시작(7/17, 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한 소식통은 17일,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이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북송 일본인 귀화자와 일본인 유골 등을 조사하는 '312그룹(숫자는 해당 방침이 나온 날짜)'을 꾸렸는데, 이것이 북한과 일본 정부 간 비공식 접촉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이 이처럼 납치자 문제에 관한 알북 교섭이 타결되기 몇 개월 전부터 일본인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는 알북관계를 정상화해 무역경제협력 등을 추진하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 자발적 입국자 日귀국허용 의사 표명<산케이>(7/18,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의사로 입국해 머무는 사람은 일본으로 귀국해도 좋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음.
- 그러나 북한은 '자신의 의사'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북한이 과거에 8명의 납치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 표명에는 납치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 경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단 8월 말에 북한이 일본에 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 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납북자 전원의 귀국과 사실 관계의 완전 규명이 필요하다고 북한에 강조할 방침임.

마. 기타

● **안보리 '탄도미사일 규탄'에 대한 北대응 주목(7/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함에 따라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반발이 바로 정세 악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 북한을 규탄한 것이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지 않은 유엔 안보리 의장의 대(對)언론 구두설명(remarks to the press) 형식으로 나왔고 구체적인 제재 등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스커드 등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임.
- 일각에서는 북한이 말로만 위협하고 실제 도발적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도 도발 수위 면에서는 저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함모 참여 한미 연합해상훈련 시작(7/16, 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16일, "우리 해군 이지스함 2척은 제주 북쪽, 목포 남서쪽 해상에서 20일까지 미국 측의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과 함께 해상기동 및 항공모함 호송작전, 항공기 요격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같은 기간 동해에서도 한미 해상 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진행된다"고 말했으며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한 조지워싱턴호를 비난하면서 우리 측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반발해 왔음.
- 한편 조지워싱턴호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번 훈련은 아베 내각이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한미일 해상 훈련임.

● 한미, '원자력 전략적 협력' 명기...새 협정에 반영(7/17,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은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이 새 협정문에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명기키로 했다고 알렸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별도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전해졌음.
- 또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측의 핵심 설비 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협력 사항 등은 합의 의사록 형식으로 담을 예정이라 했음.
- 하지만 양국이 이처럼 원자력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화했으나 우리측 농축 관한 문제와 관련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나 재처리 문제와 맞물린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FTA 12차 협상 개시...'정상회담 효과' 주목(7/14, 연합뉴스)

-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14일 시작됐으며, 앞서 지난 5월 중국 쓰촨성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다룰 규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봤지만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음.
- 당시 우리 정부는 공산품을, 중국은 농수산물을 개방 품목으로 요구하



며 맞선 모습이었지만 이번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한 뒤 처음 열리는 공식 협상이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 양국 정상이 조속한 협상 타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품 분야 협상에 진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품목별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정부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 **中 '세계금융질서 재편' 드라이브에 韓 AIB 가입 '고심'(7/15,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6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최종 서명할 계획인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질서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음.
- 중국이 주도하는 NDB는 중국판 'IMF'로 불리며 미국 주도의 IMF와 WB(세계은행)에 대항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도 주도하면서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견제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직면함.
- 이에 한국은 마중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얻을 것은 확실히 얻어내겠다는 기조로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직 가입 여부조차 확정 짓지 못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일본각료 야스쿠니 헌동, 이웃나라에 정면도전"(7/15, 연합뉴스)**

-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아베 내각의 각료 5명이 야스쿠니 신사의 전몰자 위령 행사에 등(燈)을 봉납한 것과 관련,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고통 받은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음.
- 대변인은 "작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며 "시대착오적 행위를 속히 그만두고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 **황준국 "일북협상, 북핵공조에 부정적 영향 안줘야"(7/16,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는 일북간 협상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음.
- 황 본부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이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음.

-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말 알북간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된 이후 한일 외교부 고위당국자 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방일한 것은 2년 9개월 만이며, 지난 4월 취임한 황 본부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임.

● **정부, 내달 ARF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검토(7/16, 연합뉴스)**

- 정부는 다음달 9~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관련 다자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내달 회담이 성사될 경우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됨.
-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검토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것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필요성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日, 대북제재 해제 韓美와 긴밀히 협의해야(당국자)(7/17, 연합뉴스)**

- 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일본이 앞으로 북한과의 납치문제 협상과정에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맥락에서 한국, 미국 등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은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에 발맞춰 지난 4일 인적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입항,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한 일부 제재들을 해제했고, 북한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만경봉호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금지 등의 제재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 당국자는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에 대해, 일본이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한 뒤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긴밀한 국가들끼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전사후에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음.

● **한일, 23일 국장급회담 개최 최종조율(교도)(7/17,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7일, 한국과 일본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고노담화 검증이 담화 자체를 수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또한 일본 측은 내달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환경정비도 모색하려는 구상이라고 통신은 소개했으며 이 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 한일 양국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처음 개최한 뒤 매달 한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일본이 6월20일 고노담화의 의미를 사실상 훼손하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이 이에 반발하는 와중에 6월에는 회담이 열리지 못한 바 있음.

라. 미·중 관계

● 시진핑, 미국 주도 세계금융질서에 '도전장'(7/15, 연합뉴스)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5~16일 제6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과 함께 신개발은행(NDB) 설립에 최종 서명할 예정인데, 이 개발은행의 규모가 커질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자국의 앞마당인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겨냥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도 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국 주도의 현 세계 질서의 문제점을 겨냥해 왔는데, 중국의 이런 행보는 G2로 올라선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에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남중국해 동결' 美요청에 '중립 엄수' 요구(7/15,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최근 미 고위당국자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현 상황에서 '동결'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립을 엄수하고 시비를 분명히 판단하라"고 요구했음.
- 그는 또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국가가 최근 들어 시설물, 무장장비 등을 증강하며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계속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며 주변 국가들과 직접적인 대화협상의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 군도) 해역에서 진행 중인 석유시추 작업을 중단하거나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중국해 인공섬 기지 건설계획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인민일보 "시추장비 철수는 굴복 아니다" 반박(7/17,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7일 해외판에 게재한 칼럼에서, 석



유시추 장비를 남중국해에서 철수키로 한 자국의 조치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건강부회'이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중국은 갑자기 입장을 바꿀 수가 없으며, 어느 특정 국가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다"면서 장비의 철수는 기업의 필요와 계획에 따른 것일 뿐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국 당국은 최근 베트남과의 첨예한 영유권 분쟁을 촉발한 석유시추 장비들을 조만간 남중국해상에서 철수시키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최근 미국 측이 제안한 영유권 갈등에 관한 '현상 동결'을 일부 수용할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음.

마. 마일 관계

● 마일, 집단자위권 반영 방위협력지침 개정 착수(7/15,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15일, 도쿄의 방위성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결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 위한 외무·국방 심의관급 협상에 착수했다고 지시통신이 보도했음.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역할 분담 문제와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에서의 양국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지시통신은 아베 내각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일본 국내법 개정에 앞서 마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법안 심의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음.

● 케리 미국무 "아베 방북하면 한마일 연대 흔들려"(7/16,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1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남북 일본인 재조사를 둘러싼 알북 합의에 관한 전화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마일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케리 장관은 "일본만 앞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아베 총리가 방북하는 경우 그전에 우리와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일본인 재조사 결과에 따른 일본의 추가 제재 해제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음.
- 일본 외무성은 양측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일 3국의 대북 공조를 희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임.



바. 마러 관계

- **미국, EU '비협조'속 대러시아 독자 제재 모색(7/16, 연합뉴스)**
 - 미국과 EU 관리는 15일(현지시간),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對) 러시아 추가 제재에 주저하자 미국이 독자 제재를 모색중이라고 밝혔으나 미 고위관리는 "EU와 공조해야 한다는 기초에서 벗어나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국이 독자 제재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 3월 EU와 함께 결정한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데다 미국의 반복적인 추가 제재 위협이 '업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며 CSIS의 히더 콘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신용도에 의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와 경제 관계가 밀접한 EU가 추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EU의 협조가 아쉬운 처지이지만 역으로 이러한 두터운 경제 관계 탓에 EU가 미국의 바람대로 추가 제재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분석임.

- **러시아, 미국 추가제재에 강력 반발... "아픈 대응조치" 경고(7/17,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에 대해 부메랑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제재가 양국 관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뿐 아니라 미국과 미국민의 장기적 전략 이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비즈니스협회(AEB)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연관이 없는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며 "이 기업과 은행들은 유럽 기업들이 신뢰하는 파트너"인데 "제재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아닌 유럽 기업들의 파트너를 조준하고 있다"고 꼬집었음.
 -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러시아의 주요 국책 은행과 에너지 및 방위 산업체가 미국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앞서 수십 개의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사. 중일 관계

- **중국 전문가, 지지체 센카쿠 환경조사 추진 비판(7/15, 연합뉴스)**
 - 류장용(劉江永)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15일 관영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환경조사를 추진하는데 대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이 실행된다면 중일관계는 설상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류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을 희망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목적은 다른데 있다"며 "일본은 '중국이 국제관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여론의 압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대중 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음.



- 중국은 현재까지 일본 지자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환경조사 추진과 아베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관영 언론을 통한 중국 전문가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강하게 반발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아베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상 거부(7/16,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5일, "현재 중일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중일 지도자의 접촉(회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고 말해 일본 총리의 중일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음.
- 이어 "일본은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 정부가 먼저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중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 답변을 통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음.

● **첫 '림팩' 참여 중국, 일본군 지휘 훈련엔 불참(7/17,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림팩 훈련에 참여한 미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중국이 훈련 초기에 림팩 훈련의 일환인 인도적 지원재난구조 훈련에 참여하려다 일본장교가 지휘한다는 것을 알고 참여 요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음.
- 일본은 림팩 훈련의 오랜 참가국으로서 훈련을 주도했고 특히 올해 훈련에선 일본의 해군 장성이 부지휘관을 맡고 있음에도 중국은 자국 군함이 일본의 지휘 아래 놓이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고 다른 관계자들이 전했다.
- 또한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림팩 훈련에 참여했지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규모를 파견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 동등한 관계의 재정립을 기대했으나 중국군과 협력을 제한한 미국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미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아. 일러 관계

● **<말레이기 피격>일본, 러와 영토문제에 영향 미칠까 촉각(7/19, 연합뉴스)**

- 마이니치(毎日)신문은 19일,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에 친러 시아파가 관여한 것이 명백해지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방영토 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아베 정권이 험난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여객기 격추 책임이 러시아에 쏠리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되고 푸틴 대통령이 올해 가을 일본을 방문할 때 영토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아베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임.
- 일본 정부는 일단 추측을 자제하고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일반 방문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유엔 "북한 홍역, 심각한 수준 아냐"(7/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는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수십건의 홍역이 발생했다고 통보한데 따라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세계보건기구(WHO)와 북한의 보건성과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 유엔아동기금은 조사단의 현지 조사와 위험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홍역은 심각한 수준의 발발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당국도 유엔아동기금에 현재 홍역 발발 상황과 관련한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
 - 하지만 북한의 보건성은 계속해서 홍역 전염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기구들과 홍역 발발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및 정보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北, "관대하게 용서, 모든 것 보장" 탈북자 재입북 유도(7/14, 데일리NK)
 - 북한 보안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재입북을 유도하기 위해 탈북자를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는 내용의 보안서 포치와 관련한 인민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인민반 회의에서는 탈북한 가족들과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조국과 고향, 부모형제를 배반했어도 조국으로 돌아오면 관대하게 용서할 뿐 아니라 일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아파트와 직장도 마련해주니 돌아오라고 했다'면서 '이게 다 장군님(김정은)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회의를 진행한 대부분 인민반장들은 현재 재입북한 탈북자들에게 준 아파트며 그들이 교회소에 끌려가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 주민들에게 탈북한 가족을 북한에 다시 오도록 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양강도 혜산시에도 함경북도 연사군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입북 탈북자들에게 당국에서 아파트를 제공했으나, 재입북 탈북자들은 광산, 농장 같은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혁명화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음.
 - 소식통은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집과 직장을 해결해준다고 해도 그런 사회(자본주의)를 맞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전화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디에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럼 그쪽(남한)과 통화하는 것을 통제하지 말든가 해야할 것 아니냐"며 보안당국의 포치를 비웃는다고 전했음.
 - 그러면서 "통화하다 잡히면 가족과 연락해 조국으로 다시 오라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하면 되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북,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심각(7/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올해 농사작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북한의 올해 농사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데, 단순히 협동농장들 뿐만 아니라 가뭄과 큰 일교차로 인해 개인들의 패기밭 농사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강조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서해안의 호수나 저수지들을 단순히 연결한데 불과한 동해안이 매우 열악하며,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북도 일부 지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함.
- 평안북도의 한 주민도 "어린 학생들로부터 군인, 늙은이들까지 강냉이밭 물주기에 총 동원됐다"며 "법동군과 창성군의 일부 협동농장들은 물을 제대로 못 대 논판이 터서 갈라지고 있다"고 밝혔음.

● 북, 주민감시에 꽃제비까지 동원(7/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주민감시를 위해 일부 꽃제비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눈치챈 주민들의 꽃제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싸늘해졌다고 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남도의 한 주민은 "요즘 공화국 주민들은 꽃제비들을 보면 보위부 끄나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예전에 보여주던 따뜻한 동정심 대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전함.
- 이 주민소식통은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주민을 감시하는 꽃제비들 속에는 어른 꽃제비도 있다"면서 "요즘엔 주민들이 이미 잘 알려진 보위부 요원들보다 꽃제비 정보원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장마당 같은 데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다가도 꽃제비들이 가까이 오면 말문을 닫아 버리는 분위기"라며 "말 잘 못 했다가 꽃제비 정보원에 의해 반동분자로 고발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꽃제비 정보원들은 장마당에서 아랫동네(남한) 상품거래, 불법 영상물 거래, 몰래 남한 TV 시청하는 사람 색출 등 그 활동 영역이 다양하다고 전하면서 그들의 제보로 하룻밤 사이에 온 식구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음.
- 평안북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일부 꽃제비들의 감시활동 때문에 불쌍한 대다수 꽃제비들이 주민들의 냉대를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일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못 보던 일인데 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보위부의 주민 감시방법이 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악랄해졌다"고 비난했음.

● 북, 비용부담으로 학업포기 늘어나(7/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학교관리와 운영비 부담이 너무 커 자식들의 학업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중앙의 지원이 끊긴 북한 지방교육기관들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어차피 큰 간부를 못할 바에야 학교는 왜 가겠냐?"며 "학교를 바로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고 밝힘.
 - 학교를 졸업하면 정상발달 청소년으로 기록돼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궤양이나 결핵, 비타민부족에 의한 변성영양실조를 구실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사에게 돈을 찢러주면 얼마든지 만성위궤양이나 결핵, 변성영양실조 등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교과서와 학습장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의 교육에 필요한 부담이 너무 많다"며 "여기다 겨울철 난방문제를 비롯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모두 학부모들의 몫"이라고 교육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피력함.
 - 양강도 헤산시 혜화중학교만 놓고 봐도 지난겨울 난방비용으로 매 학생당 중국인민폐 26원(위안)씩 거두었으며 7월 초에는 한 주일간 '고사리 채취방학'을 주고 그 대가로 중국인민폐 42원씩 받아냈다고 그는 주장했음.
 - 이 외에도 혜화중학교는 올해 학교 창문틀 교체와 '계급교양관 꾸리기'라는 명목으로 매 학생들로부터 인민폐 30원씩 거두었다며 해마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는 비용은 학생 1인당 200원 정도가 된다고 함.
 - 이런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돈 많은 집 학부모들까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개인교사들을 채용해 공부를 시키고 있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
- **북한 MDGs 성취도 여전히 부진(7/1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지난주에 공개한 '2014 새천년개발목표(MDG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새천년개발목표 성취도가 여전히 동아시아 최하위권으로 확인됨.
 - 유엔이 집계한 국가별 새천년개발목표 성취 자료를 보면, 북한은 목표하는 22개 세부 항목 중 8개 부분만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순조롭게 개선되고 있음.
 - 특히 영양실조비율과 신생아 사망률, 토지 황폐화, 그리고 부진한 하수 시설 등의 항목들은 북한이 동아시아 국가 중 성취 속도가 가장 느리다고 평가되고 있음.
 - 새천년개발목표는 북한의 5세 이하 영아의 사망자 수를 2015년까지 7만 1천 명 선으로 낮추는 것이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2015년 북한의 5세 이하 영아의 사망 예상치는 12만 7천 명으로, 현재 추세의 절반 이상 줄여야 목표치를 달성하게 됨.
 - 또한 국제기구들은 산모의 출산을 돕는 북한 내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출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의 환경과 관련해 삼림 조성의 부진과 기본적인 하수시설의 부족도 문제인데, 유엔의 통계는 1990년 68.1%였던 북한의 삼림 비율이 2010년 47%로 떨어졌으며 하수시설 역시 82%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함.

● 북, IFRC에 '큰 홍수' 예보 알려(7/17,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적십자사(IFRC)는 동아시아 사무소 프랜시스 마커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기상청이 올해 큰 홍수를 예보해왔다"면서 "재난 구호 준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 IFRC는 지난 9일과 10일 평양에서 '2014 재난 예방 전국 회의'를 열어 인민군, 국가재난관리부서, 그리고 보건성 등의 해당 관료들을 모집해 '전국 홍수 대응 계획'을 점검했음.
- 또한 홍수 피해와 관련한 조기경보와 대피훈련도 진행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모의 훈련을 하고 있음.
- 또 국제적십자사가 올해 북한의 홍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알려오자, 이란도 텐트, 즉 천막과 담요 등을 지원해 현재 북한으로 배달 중에 있다고 설명했음.
- 마커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 1만 가정을 위해 주요 지역 7곳의 적십자 창고에 가정용 텐트, 방수포, 밥솥과 냄비 등 조리기구, 이불,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비축해 놓았다고 말했음.

● 미 농무부 "북한 식량 사정 점차 개선...10년 뒤 식량부족 없을 것"(7/17, 미국의 소리)

- 미국 농무부는 최근 공개한 '식량안보평가 2014'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안보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취약하지만 올해 식량 사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졌으며,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함.
-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 (Food Nutrition Gap)이 7만t으로, 지난 2010년 1백만t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추정해,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분을 약 34만t으로 추정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크게 대비됨.
- 농무부가 추정한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지난 2010년 1백만t에서 2011년 81만t, 2012년 84만t, 2013년 44만t으로 감소했음.
- 그러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어도 2014년 현재 주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음.
-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처의 스테이시 로슨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앞으로 10년 간 계속 개선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힘.
- 하지만 2024년에도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 꼴인 1천만 명은 여전히 유엔의 권장량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슨 연구원은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분배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북 교원들 생활고로 교육현장 이탈 심각(7/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12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생활고로 인한 교원이탈이 이어지자, 교육계에 비상이 걸림.
 - 최근 남포시의 한 소식통은 "올해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제도가 실행되면서 교원숫자가 부족한데 사직서를 내는 선생님이 많아 학교마다 야단"이라고 전함.
 - 교육부문에 종사한다는 이 소식통은 "특히 물리, 수학, 화학 등 자연과목 선생님이 빠지면 학교 전체가 흔들린다"면서 "이들 중에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그만두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 시 교육당국이 교원들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원들에게 한 달 식량배급 가운데 보름치밖에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일부 교원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비법행위를 저지르다 단속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또 일부 교원들은 수입이 괜찮은 사교육 현장으로 빠지면서 당국의 질책도 이어지고 있음.
 - 최근 연락이 닿은 평양시의 한 대학생은 "이름은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40대의 한 고급중학교 물리교원은 다과목소조 지도교원으로 구역적으로 명망이 높았는데, 사직서를 내고 개별과외를 시키고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 교원들이 잇따라 교단을 떠나려고 하자, 시 교육당국은 "당의 배려로 대학까지 다니고 그만두면 양심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생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원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의 일부 교원들은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식량과 기름, 담배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신성한 학교가 뇌물로 얼룩지고 있음.

- **북, 용천신의주지역 통금해제(7/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지난 6월 초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통행금지를 실시했던 평안북도 용천과 신의주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령을 7월 17일부로 모두 해제함.
 - 지난 6월 초순 평안북도 용천과 신의주 지역에 발생한 홍역이 더는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전면통금 조치를 취한 북한 보건당국의 방제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임.
 - 이들 두 지역엔 이달 15일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가 다시 20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 며칠 앞당겨 통행금지를 해제한 것은 홍역의 확산이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임.
 - 이번 홍역발생에 대해 북한언론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으나 유엔 산하기구(WHO, UNICEF)에 홍역발생 사실을 조기에 보고하는 한편 북한당국 나름대로의 발 빠른 방재대책에 나섰던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음.
 - 18일부터는 그동안 신의주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던 열차와 다른 교통수



단들도 정상적인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도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 장마당, '깨비'장사만 늘어(7/18,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 양강도 소재지 혜산시에서 운영되던 소규모 장마당들이 대부분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사꾼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장마당이 문을 닫게 됐다고 양강도 현지 소식통들은 언급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그동안 혜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돼 온 크고 작은 장마당들은 모두 합쳐 11개였으나, 지금은 장사꾼들이 크게 줄어 연봉과 역전, 혜탄, 위연 장마당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혜산시 역전장마당은 전국적으로도 크게 알려진 도매 시장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도매장사들은 모두 사라지고 '깨비' 장사꾼들만 판을 치는 장마당이 됐다"고 전함.
- '깨비' 장사는 담배 한 갑을 따서 한 깨비씩 팔던 장사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나 날개로 쪼개서 파는 장사꾼들을 다 '깨비' 장사로 부르고 있으며, 예전에는 깨비 장사가 드물었으나 올해는 장사가 되지 않으면서 과일이나 물고기, 지어 남새나 두부도 반쪽씩 쪼개서 파는 게 대세임.
- 이러한 현실은 함경북도도 마찬가지이며,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장마당이 얼어붙은 원인에 대해 그는 식량사정이 좀 나아지며 장마당 유통 상권을 주도하던 쌀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여기에 국경에 대한 봉쇄가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밀수가 활발하지 못한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고 함.

2. 북한인권

● 美하원 외교위원장 "北 인권침해 책임 물어야"(7/17,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재미 기독교단체 '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연합'(KCC)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연설
- 그는 "북한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수많은 폭력행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언급

● 유엔 北인권 사무소... 年内 국내서 활동(7/17, 조선일보)

-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주의 범죄를 조사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
-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16일 "유엔에서 5명을 파견하고 한국에서 2~3명



을 현지 채용해 총 7~8명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책임자는 선임 과장급(P5)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무소 위치는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인천 송도가 유력하지만 북한 인권 단체들은 조사 편의와 상징성을 감안해 서울에 두자고 주장

● **영국 외교부 장관 "북한 인권 참상 외면하지 말아야"(7/18, 미국의 소리)**

-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17일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포스트' 영국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
- 스와이어 부장관은 문제에 대한 쉬운 해답이 없는 실정이나,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영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고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며, 그 일환으로 영국이 평양주재 대사관을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의미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며, 그 같은 변화가 하루 밤 사이에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북한 내 일부 지도자들만이라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개방에 나서는 나라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

3. 탈북자

● **보이스피싱필로폰 밀반입 주도한 탈북자 18명 적발(7/16, 연합뉴스)**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이스피싱으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 모(27) 씨 등 18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으며, 잠적한 박 모(33) 씨 등 4명을 수배했음.
- 22명 가운데 총괄 책임자인 박 씨와 연락책인 이 씨 등 주범 7명이 탈북자임.
-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5일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정모(44여)씨 38명에게 전화로 자녀가 납치됐거나 크게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이들이 중국 장시(江西)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해커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 432개 파일, 600만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 또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모(23) 씨 등 탈북자 12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같은 혐의로 송모(25)씨 등 탈북자 2명을 수배했음.
- 이들 14명 가운데 전 씨 등 3명은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체 탈북자는 18명으로 집계됐음.



- 전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필로폰 70g(시가 2억1천만원 상당)을 사들여 지난 1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 조사 결과 전씨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으로 필로폰을 샀음.
- 문제의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 등지에서 알게 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음.

● **빈집에 들어가 골동품 훔친 탈북자 검거(7/16, 연합뉴스)**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빈집에 들어가 골동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탈북자 임모(46)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음.
- 이들은 지난 1~2월 광주 광산구 김모(55여) 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불상 등 2천만 원 상당의 골동품 36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은 김 씨가 빈집에 불상을 보관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훔친 불상을 장물업자를 통해 처분하려다가 덜미가 잡힘.

● **탈북여성 동원해 日원정 성매매...업주 '집행유예'(7/19,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 탁 모(53여)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함.
- 탁 씨는 2008년 11월~2010년 9월 일본 도쿄 우에노 인근 지역에 마사지업소 2곳을 차려 놓고 탈북자 출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됨.
- 탁씨는 브로커를 통해 탈북자 출신 여성들을 일본으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마사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1만엔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음.
- 검찰 조사 결과 탁씨는 자신이 고용한 탈북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50%를 받아 챙겼으며, 하루 1000엔가량을 식비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남.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북 보위부, 재북 일본인 재조사 골머리(7/14,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을 위한 북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북한 보위부가 일본인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분을 속이고 살던 일본인



- 들이 협조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함.
- 중국에서 연락이 닿은 북한의 무역관계자는 "중양에서 '일본 출신 주민들을 전면 재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보위부가 보안부, 인민반 등 조직망을 통해 일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전함.
 - 보위부가 찾고 있는 대상은 원조상이 일본사람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북한에 잔류한 사람이거나, 1960년대 만경봉호를 타고 북한으로 간 일본인들로 한정됐음.
 - 이 관계자는 "보위부가 재포(북송 교포)들 가운데 일본 국적자를 가려내기 위해 귀국자 문건을 다시 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일본인임을 숨기고 살던 대상자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4일 "공화국은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당국차원의 재조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직할 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특별조사위원장에 지명되어 실무 작업을 지휘하고 있음.
 - 하지만, 보위부가 미확인 미신고 된 일본인을 찾는 데 상당한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분을 속이고 살던 일본인들은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는 걸 완강히 부인하자 보위부는 이들과 친한 사람들까지 접근시켜 신상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보위부의 실체를 잘 아는 일본인들은 처벌이 두려워 입을 봉하고 있음.
 - 또 정치범 수용소와 산골로 추방돼 사망했거나, 행불자로 남은 일본인들을 처음부터 조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 북한 보위부는 북일 교섭이 있던 다음 근 한 달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예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자, 책임이 자기부서에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은 언급했음.
- **케리 미국무 "아베 방북하면 한미일 연대 흔들려"(7/1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미일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케리 장관이 이달 7일 기시다 외무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남북 일본인 재조사를 둘러싼 북일 합의에 관해 이같이 언급했음.
 - 케리 장관은 "일본만 앞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아베 총리가 방북하는 경우 (직전에) '간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우리와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표명했으며, 남북 일본인 재조사에 따라 일본이 추가로 제재 해제를 단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 "추가 제재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함.
 - 기시다 외무상은 "미디어가 (답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도한 것일 뿐 아베 총리의 방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의 답변이 일반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외무상이 케리 장관에게 북일 협의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아베 총리의 방북이나 제재 해제에 관한 양측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 케리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음.
- "北, 올 3월부터 전담반 꾸려 일본인 조사 시작"(7/17,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하기 4개월 전인 지난 3월부터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본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한 소식통은 17일 "북한은 올해 3월 12일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북송 일본인 귀화자와 일본인 유골 등을 조사하는 '312그루빠'를 꾸려 이미 실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312그루빠는 노동당이 지도하고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형태로 일종의 민생 그루빠"라며 이 TF의 표면적인 활동 목적은 "무직자, 방랑자 전수조사"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납북자와 북송 일본인의 생활 실태 조사가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312그루빠는 일본인 생존자 조사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까지 찾는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른바 '3월 12일 방침'이 북한과 일본 정부 간 비공식 접촉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북한, 자발적 입국자 日귀국허용 의사 표명"(7/18,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재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의사로 입국해 머무는 사람은 일본으로 귀국해도 좋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했다는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이 생존한 일본인을 귀국시킬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으며, 북한이 과거에 8명의 납치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 표명에는 납치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이 말하는 '자신의 의사'가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이 재일 조선인 북송 과정에서 남편을 따라 이주한 일본인 처(妻) 등을 우선 귀국시키거나 납북자 등의 재조사 결과를 전할 때 사고조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들어간 일본인의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 불용액 7천억원 넘어(7/14, 노컷뉴스)

-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2013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지출사업 중 대북 인도적 사업 사업비 총 7,408억 5400만원가운데 2.3%인 173억7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음.
- 특히 사용 항목 중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과 '당국차원의 지원 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재천 의원은 "통일부가 배포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 이유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음.
- 또 "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함.
- 최 의원은 "정부는 원칙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 NGO "북, 아파트 붕괴관련 지원요청"(7/15,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민간단체 쉘터 박스는 최근 북한의 평양 아파트 붕괴 사태에 대한 지원을 요청 받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이 기구는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자신들의 지원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대북 어린이지원단체, 개성서 북측과 보건사업 논의(7/15, 연합뉴스)

- 대북 어린이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관계자 3명은 15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평양남포 등지에서 진행 중인 소아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함.
- 이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일부 지원이 중단된 소아병원의 운영 상황과 올해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농축산 분야 등 30억 민간단체 통해 대북지원(7/15, 연합뉴스)**
 - 정부가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 하기로 결정해,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에 정부 기금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임.
 -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도 실질적으로 해제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5·24조치의 틀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부문에 정부의 지원이 풀린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한편 지난달 26일 민간단체 '겨레의 숲'은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대북 산림녹화 지원사업 재개에 합의하고 금주 중 병충해 관련 물자를 반출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은 산림지원 물자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어제 경기도측에 팩스를 보내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 **대북지원단체, 개성서 북측과 말라리아 방역 논의(7/17, 연합뉴스)**
 -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17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과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대해 논의했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5명은 이날 오전 9시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등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 방역 사업 지원에 대해 협의했음.
 - 이들은 이날 북측의 말라리아 방역 현황, 방역사업 재개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NGO, 북 아동 위해 김장 배추 지원(7/18,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국제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스웨덴이 북한에서 김장용 배추를 직접 온실 재배해 북한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북한을 방문한 세이브 더 칠드런 인도지원 담당자 제스퍼 한센 씨는 북한의 미취학아동들이 반찬 없이 밥만 먹을 때가 많고 밥 또한 먹기 힘들다고 말해 아동들의 영양섭취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북한의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공장에 콩 요구르트와 비스킷, 그리고 빵을 생산하는 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식량지원 이외에도 가정과 학교, 그리고 병원을 위한 상수도 설치 사업도 북한에서 진행 중임.



8. 북한동향

- 미국의 세계 각국 도청 사건을 거론하며 '선진기술을 도용하여 세계를 거머쥐어 보려는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미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고 주장(7.13, 중앙방송/정탐행위가 몰아온 미국 배척바람)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운영' 관련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北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합동신문센터의 '해체' 주장(7.15, 중앙통신·노동신문/날날이 드러난 간첩사건 제작소의 정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